



패스트푸드 좋아하고 운동은 안하고...

도내 초중고생 비만을 2015년 13.6%→2019년 18.3%
작년 전국평균보다 3.2%p ↑... 비만을 고→중→초 순
도교육청 비만예방활동 코로나19 사태로 ‘개점휴업’

가뜰이나 전국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제주 학생 비만율’이 코로나 19라는 약재를 만났다.
25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2015년 13.6%에서 2018년 17.8%, 2019년 18.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15.1%보다 3%p 이상 높은 수치이며 학교급 별로 보면 초등학교 15.3%, 중학교

19.4%, 고등학교 23.6%였다.
학생 비만율이 높은 것은 패스트푸드 섭취가 잦은 식습관과 미흡한 운동 실천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중·고등학생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각각 34.3%, 28.5%

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주 3일 이상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은 17.6%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학교스포츠허브 활성화 ▷건강 실천율 향상을 위한 ‘혼디 걸으며 와바(Wa ba) 캠페인’ ▷비만예방교육 확대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교육청의 비만에 방화선이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먼저 ‘와바’ 캠페인의 경우는 당초 목표로 했던 63%(2019년 62.8%)의 참여율을 포기하기로 했고, 장소에

구에 받지 않았던 활동 내용도 ‘학교 내’로 제한한 상황이다.
이어 학교스포츠허브는 지난해 73%에 달하던 활동률이 올해 10월 1일 기준 5.16%로 추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와바 캠페인은 지난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했지만, 단기간 사업 추진 및 방역 수칙 이행 조치 등 학교 업무 부담 문제가 있어 축소하게 됐다”며 “다만 학교스포츠허브의 경우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학교스포츠허브 축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이번주 일교차 클 듯 산간지역은 영하로 ‘뚝’

한라산 고지대에 상고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제주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8℃ 내외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주 후반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12℃에 머무는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산간 지역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낮 최고 기온은 19~21℃를 보이는 등 주말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10~13℃로 떨어지는 날이 있어 춥겠다.



등반객 시선 사로잡는 한라산 상고대 지난 24일 한라산 정상 부근에 올라가 들어 처음 상고대가 피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한라산 정상 주변 기온이 영하 1℃ 안팎을 보이며 수빙(상고대)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상고대는 밤 기온이 0℃ 이하일 때 대기 중의 구름이나 안개 입자들이 나뭇가지나 바위 등에 부딪혀 얼어붙는 것으로 ‘나뭇서리’라고도 불린다. 강희만기자

서울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제주 방문

도 “확진전 20일 5시간 제주체류... 접촉자 13명”

서울 성북구 351번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전 제주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제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성북구보건소로부터 성북구 351번 확진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40분쯤 고대안암병원에서 검체를 채취,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50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약 5시간 동안 제주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오후 2시40분쯤 아시아나항공 OZ8597편을 이용해 오후 3시50분쯤 임도한 후, 당일 오후 8시50분쯤 제주발 김

포항 아시아나항공 OZ8978편을 타고 제주를 떠났다.
한편 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기준 A씨의 방문지는 입·출도 항공기 포함 3곳이며 접촉자는 13명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방문지는 아시아나항공기를 비롯해 제주시 연동 소재 차돌집이 확인됐다.
접촉자는 ▷지인 1명 ▷가족 1명 ▷항공기 탑승객 5명 ▷차돌집 손님 6명이다. A씨의 접촉자 가운데 밀접 접촉이 이뤄진 지인과 가족 등 2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24일 오후 2시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경찰내부,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난색?

김원준 지방청장 국감서 “현재론 일원화 바람직”

도·도의회는 이원화 모델 추구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제주도, 도의회 입장과 달리 현재 단계로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어느 제도가 맞다, 안 맞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조직을 나눈) 이원화 모델이 낫겠지만 현재로선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임용환 충북 청장, 김규현 강원청장, 윤동춘 경북 청장도 김 청장과 같은 의견을 내, 국가경찰 내부에서는 제주도의 생각과 달리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가 시기 상조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은 지난 8월 김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을 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조직을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시행되면 외청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그 지위를 잃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 조직과 사무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해오다 예산·인력 문제로 일원화로 방향을 틀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월 10일 입장문을 내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뒤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도의회는 제주자치경찰 존속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이상민기자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 부검결과 “원인 미상”

경찰, 국과수에 정밀검사 의뢰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이틀 만에 숨진 제주지역 60대 접종자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68)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3일 ‘사망원인 미상’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A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4시쯤 몸살 기운과 목 통증을 느끼고 출근 후 열이 오르자 이날 오전 10시쯤 접중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뒤 오후 3시쯤 귀가했다.
이어 A씨는 이날 오후 11시57분쯤 호흡 곤란 증상으로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0시10분 숨졌다.
도 보건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민기자

보행자 사망 버스기사 벌금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그랜드보청기

호국보훈의달특별할인행사

* 전장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샅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민니향

제라몬

하례조생

탐나는봉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작은 감귤이 멋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예감, 탐나는봉

가정원예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날,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 라 조 생

감 평

성하홍조생

성 전 온 주

천 해 향

황 금 향

유 라 실 생

탱 자 묘

1,3년생

1,3,4년생

1년생

1년생

4,5년생

4,5년생

3,4년생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민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